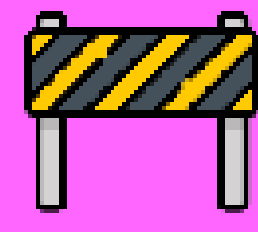




벌목한 나무에 머리맞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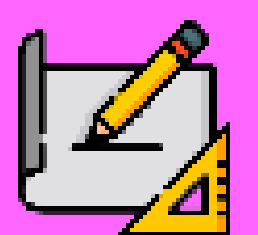


재해개요

발생형태	부상 정도	연령	직종
맞음	사망	53세	벌목공

2022. 00월 00일 충남 소재 00벌목 작업장에서 잣대작업* 중 동료 근로자가 벌목한 나무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재해임

* 잣대작업 : 벌목한 나무를 일정한 길이로 켜 후 표시하는 작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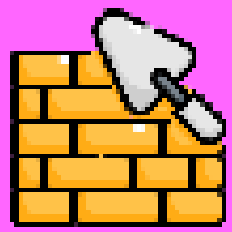
유사사례

2022.03

벌도목이 넘어지면서 인근에 위치한 나무와 부딪혀 부러진 나뭇가지가 날아와 벌도목 밑둥에 낀 톱날을 제거하고 있던 근로자의 두부를 충격하여 사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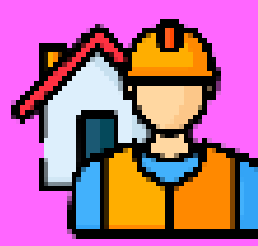
2021.02

기계톱을 이용하여 소나무 벌목작업 하던 중 방해목에 걸려 지면으로 떨어지지 않은 벌도목에 복부를 맞고 쓰러진 후 떨어진 벌도목에 깔려 사망



작업상황

- (2인1조 작업) 벌목작업과 잣대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2인 1조 작업수행
- (정상) 벌목작업 중 벌목하려는 나무로 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위험구역 내 다른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작업수행
- (비정상) 벌목하려는 나무로 부터 가해질 위험이 있는 위험구역 안에서 작업 수행



예방대책

1

벌목작업 시 위험방지 조치 철저

-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위험구역 내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위험방지조치 준수

2

벌목작업 시 신호 철저

-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근로자에 주지
- 벌목작업 중 위험이 발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정한 신호를 하고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 벌목하도록 신호체계를 준수

※ 본 OP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